

01 교회소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응답과 축복의 현장 '은사집회' 개최와 뜨거운 호응 속에 마쳐진 인도 GCN TV 힂디어 시청자 모임 등 국내외 선교 소식.

02 생명의 말씀

사랑은 온유한 것

영적인 온유함은 마음에 약이 없고 지혜로우며, 영적인 사랑이 맺어 어떤 악한 사람도 대적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이다.

03 기획특집

연단을 통해 온유함을 이룬 모세

온유한 마음을 이루는 데에는 주어진 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선과 사랑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04 간증

"웬 은혜, 웬 축복인가요~"

시력이 회복되는 권능을 체험한 김명애 권사와 뇌종양을 치료받고 가정의 믿음 안에 하나 된 클로비아 마르셀라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제873호 2019년 1월 2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몰도바 평신도 선교사 파송식



지난 1월 13일 주일 저녁 예배 시, 유럽 동부 내륙에 위치한 몰도바에 평신도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다.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선교사(34세)는 러시아어 위성 방송인 TBN 러시아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를 들으며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었고, 2014년부터는 몰도바 교회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만민중앙교회에서 각종 예배와 기도회, 만민기도원 집회 참석, 주의 종 및 일꾼 만남 등을 통해 평신도 선교사 파송 준비 시간을 가졌다. 2016년 12월에는 몰도바 교회 청년들과 함께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여 선교 현장을 체험한 바 있다.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선교사는 현재 MIS(만민국제신학교) 과정을 밟으며 전도사역에 힘쓰고 있다.

"2009년 10월경, 저는 크리스천이면서도 죄의 문제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옥에서는 불로 달궈진 프라이팬에서 소금이 튀는 듯한 고통을 받는다'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요"

그는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통해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등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아 마음의 성결을 사모하게 되었다. 또한 사랑하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2014년 4월부터는 자신을 포함해 9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모친 따찌아나 따바라누 성도(58세)가 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로 급성 폐성심(폐질환이 원인으로 심장의 우심실계의 비대, 확장을 일으킨 상태로 결국 사망에 이르는 병)을 치료받아 죽음 앞에서 소생하는 체험을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

이후 성전을 임대해 교회로서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GCN방송을 통해 우리 교회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는 70여 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한 은혜와 감동 속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인도 GCN TV 힂디어 시청자 모임 열려

인구의 80% 이상이 힂두교를 믿는 인도에서 GCN TV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에 은혜받고, 이어지는 환자기도로 치료받은 시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이러한 GCN TV 힂디어 시청자들의 요청으로 인도 북동부 우타르프라데시 주, 수도 델리, 북서부 펀자브 주에서 시청자 모임이 개최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1월 14일(월), 중부 마디아프라데시 주 인도르에서 GCN TV 힂디어 시청자 모임이 진행되었다. 이날 인도 델리만민교회 담임 김상휘 목사는 '경작하시는 하나님'(창 3:23)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고, 참석자들은

놀라운 치료와 응답의 역사! '은사집회' 개최

사도행전 19장 11~12절에 사도 바울의 몸에서 취한 손수건을 통해 악귀가 나가고 각종 질병이 떠났다고 기록된 것처럼,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손수건을 통해 전 세계에서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새해를 맞아 매달 마지막 금요일야예배 시 '은사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1월에는 25일 밤 11시에 시작되는 금요일야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때 본당에서 교역자회 회장 이수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다. 권능의 손수건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각종 질병 치료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 풍성한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에 대해 밝히 깨우쳐 주는 이재록 목사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듣거나 혹은 저서 『십자가의 도』를 읽고 믿음으로 참석하면 누구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섭리' 외에도 '선악과를 두신 이유', '십자가의 섭리' 등 구원의 도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하며 신앙의 기본을 정립해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발간 17주년을 맞은 『십자가의 도』 책자는 영어, 중국어, 불어, 일어 등 60개 언어로 발간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할 수 있다.

한편, 1월 25일 금요일야예배 2부 '은사집회'를 앞두고 만민기도원에서는 1월 14일부터 하나님과의 막힌 죄의 담을 열어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2주간 은사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며 지속적으로 강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랑은 온유한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 고린도전서 13:4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이솝 우화 가운데 해와 바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해와 바람이 길 가는 사람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는지 내기를 합니다. 먼저 바람이 자신만만하게 나무도 뽑힐 만큼 강한 바람을 내뿜었지요. 나그네는 행여 거센 바람에 외투가 날아갈까 봐 더 단단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다음으로 해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따스한 햇볕을 내뿜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더위를 느낀 나그네는 얼른 외투를 벗었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람은 자신의 힘으로 외투를 벗기려 했지만, 해는 나그네 스스로 옷을 벗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온유함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선과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상대의 마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1.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

‘온유함’이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많은 사람이 깃들여 쉴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전에 보면 ‘부드럽고 유순함, 온화함,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숨을 떠올려 보면 온유한 마음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물체가 부딪혀 와도 숨이 감싸 안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듯이 온유함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깃들여 쉴 수 있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커다란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 아래 들어가면 시원하고 행복한 것처럼 온유한 마음을 지니면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여 쉬고 싶어 합니다.

흔히 성품이 유순해서 누가 뭐라 해도 화내는 일이 없고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순하고 착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함이 아니라면 진정 온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온유함’은 마음에 악이 없고 지혜로우며 영적인 사랑이 맺혀 있어 어떤 악한 사람도 대적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유하다 해서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을 반듯하게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위엄도 함께 갖추

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온유한 사람은 선할 뿐 아니라 행동이 반듯하고 지혜롭습니다.

‘영적인 온유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면의 온유함과 함께 외적으로도 덕을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악이 없고 선해서 마음이 온유하더라도 그것이 내면에만 머문다면 남을 품고 다스리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지요. 내면의 온유함과 함께 외면의 덕을 겸비해야만 온전하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에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므로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랑이란 오직 용서하고 이해하며 허물을 덮어 주는 것,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도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때로는 죄악을 엄히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민 14:18).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이 온유와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선하고 온유하여 사랑과 긍휼이 많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덕이 함께 갖추어질 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온유함은 내면의 온유함에 덕을 갖춘 상태이므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2. 내면의 온유함을 이루는 척도는 성결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성결 되어야 합니다. 성결한 사람은 숨과 같이 누가 부딪혀 온다 해도 소리가 나지 않고 포근히 감싸 안습니다. 마음에 악이 없으니 어느 누구와도 걸리거나 부딪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 시기, 질투처럼 뾰족한 마음이나 자기 의와 틀 같은 단단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를 품을 수 없습니다.

딱딱한 돌이나 쇠에 물체가 떨어지면 소리를 내며 튕겨 나가듯이, 자기가 살아 있으면 상대가 조금만 불편하

게 해도 싫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허물이나 티,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보면 이해하고 덮어주기보다 판단, 정죄하고 수군수군하지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담으려 해도 이내 넘쳐 버리는 작은 그릇과 같습니다. 혹은 그릇 안에 온갖 더러운 잡동사니가 담겨 있어 더 이상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좁은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거나 질림이 되면 발끈하고 마음이 상하거나, 남들이 조그마한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면 ‘내 말을 하는 건 아닐까?’ 하고 궁금해지고 ‘나를 힐끗 보니 내 얘기를 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마음에 악이 없는 것이 온유함의 기본 조건입니다. 상대를 선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온유한 사람은 매사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봐 줍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고 어찌하든 선과 사랑으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라도 그 따스함에 마음이 녹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성결을 이루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악이 있는 만큼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 정확히 분별할 수 없으니 영혼들을 푸른 초장과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없지요.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야 성령의 주관을 정확히 받을 수 있고 양 떼의 상황을 백 퍼센트 분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온유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3. 영적인 온유함을 온전케 하는 덕

영적인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할 뿐 아니라 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덕이란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사람의 도리에 합당한 일’ 등으로 정의합니다. 영적인 의미의 ‘덕’도 마찬가지이지요. 덕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올바르고 공정하며 도리에 합당히 행합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반듯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며 사랑을 받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월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도 별거벗고 있으면 수치스러울 것처럼 온유해도 덕을 갖추지 않으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마음은 온유한데 대화만 했다 하면 불필요한 장광설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양이 없어 보이니 상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또 마음이 온유해서 나쁜 감정을 품거나 피해를 주는 일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거나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이 역시 마음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고운 빛깔과 향이 없는 꽃은 아무리 꿀이 많아도 벌이나 나비를 불러 모으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온유하여 악이 없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라 해도 말과 행실에 덕이 없으면 온유함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면의 온유함과 함께 외면의 덕을 갖출 때 진정한 온유하다 할 수 있고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복형들의 미움을 받아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른 살에 일약 총리에 올랐지요. 만일 그에게 조금이라도 허물이나 과실이 있었다면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온유하고 겸손했을 뿐 아니라 말과 행실에 흠이 없고 위정자로서의 지혜와 위엄도 있었지요.

왕 다음가는 큰 권세가 있었지만 군림하려 하거나 들레지 않았습다. 자신에게는 엄격하였지만 상대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부드러웠지요. 그래서 왕이나 다른 신하들이 요셉을 경계하거나 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후일 애굽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 온 요셉의 일가를 얼마나 환대했는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덕은 반듯한 언행을 갖추었다 해도 그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 정죄하지 않는 넓고 큰마음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이런 면모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의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지요. 무조건 징계하거나 용서한 것이 아니라 형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도록 상황을 만들어 결국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떠올리고 뉘우치게 한 뒤에야 자신을 밝혔습다.

요셉은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마음에서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감동적인 말로 위로합니다(창 45:5). 원수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행함 곧 외면의 덕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덕을 겸비한 온유함은 기근에 처한 애굽과 그 지경의 수많은 생명을 건져내는 힘이었으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덕은 마음에 있는 온유함이 적극적인 행함으로 나타난 것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4. 덕을 갖추려면 성결하고 마음 됴됨이를 바꾸어야

내면의 온유함이 성결을 통해 이뤄지듯이 덕 또한 악을 벗고 성결 될 때라야 갖출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결되지 않았다 해도 교양을 바탕으로, 혹은 타고난 마음 그릇이 커서 덕스러운 행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덕은 악이 없는 마음, 진리를 좇는 마음에서 나올 때라야 참된 것입니다.

덕을 온전히 이루려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살전 5:22),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합니다(마 5:48). 내면에 악이 없을 뿐 아니라 말과 행

실, 몸가짐 등 외적인 모습도 흠이 없을 때 많은 사람이 깃들일 수 있는 온유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움, 시기, 질투, 교만, 혈기 등 악을 버리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불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주관을 받아 세세한 몸의 행실까지도 진리로 채워나가야 합니다(롬 8:13).

몸의 행실에는 도둑질이나 폭력 등 명백한 비진리나 죄뿐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행실도 포함됩니다. 가령 말할 때나 웃을 때 습관적으로 옆 사람을 툭툭 치거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나치게 목소리가 커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덕이 있는 사람은 주의 교양을 갖춰서 이런 작은 분야도 반듯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깃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음 됴됨이도 좋게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마음 됴됨이란 마음 그릇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마음 됴됨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이상을 해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해야 할 일만 겨우 하거나 그만큼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크고 넓기 때문에 자신의 일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일도 살피 줍니다(벧 2:4).

마음 됴됨이는 자신이 얼마나 마음을 넓혀서 쓰는지 에 따라 달라지므로 꾸준한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만 돌아보기에도 급급한 좁은 마음이라면 마음을 넓히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악이 없는 온유한 마음에 덕을 갖춘다면 다양한 사람이 소속된 큰 조직도 능히 살피고 다스려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리더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지요.

5. 온유한 사람이 받는 축복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했고, 시편 37편 11절에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땅은 천국의 처소를 뜻하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큰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온유할수록 많은 영혼이 깃들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섬긴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의 권세는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니 섬기는 자가 될수록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장차 천국에서 큰 권세를 누리고 그만큼 넓고 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는 대부분 부와 명예를 잃어버림과 동시에 사라지고 말지만, 온유한 사람에게 따르는 권세는 다릅니다.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니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세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무수한 영혼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의 온유함과 함께 외면의 덕을 겸비한 사람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므로 큰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온유함을 이루어 장차 천국에서 큰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을 통해 온유한 마음을 이룬 모세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민 12:3).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자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출 32:31~32)

물론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자기 가운데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모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자신이 가장 천하게 여기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며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출애굽 지도자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선과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시력이 좋아지다니 웬 축복인지요!”

김명애 권사 (50세, 2대대 10교구)



저는 몇 년 전부터 눈이 침침하고 책을 읽다 보면 글씨가 두세 겹으로 보였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아 안경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니 노안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독서용 안경을 맞춰야 했습니다. 2015년 7월, 건강검진 시에는 좌우 시력이 1.2, 0.7로 나왔습니다.

2016년 8월, ‘만민하게수련회’를 앞두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올해는 눈에 관련된 질병을 많이 치료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꼭 응답 받으리라 결심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였지요.

하게수련회 첫날 교육 시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을 때부터 마음 안에서 알 수 없는 행복감이 넘쳤습니다. 단에서 전체를 위한 환자기도를 해 주실 때는 제 눈 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간절히 받았습니

다. 수련회에 다녀온 뒤, 신기하게도 책을 읽을 때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도 글씨가 눈에 똑똑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해 보니 노안이 치료된 것과 시력이 1.2, 1.0으로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수련회를 앞두

고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성도가 실명, 시각장애와 눈 관련 질병들을 치료받아 영광 돌렸는데, 저도 응답받아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8년 건강검진 시에는 더 잘 보였습니다. 간호사는 놀라워하며 “이렇게 작은 글씨가 보이세요?”라고 재차 물었지요. 검진 결과는 좌우 시력이 1.5, 1.2였습니다. 3년 동안 제 시력이 좌측은 1.2에서 1.5로, 우측은 0.7에서 1.2로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도 시력이 좋아지니 제 자신도 놀라기만 합니다. 주변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고 책이나 작은 글씨도 안경 없이 잘 보이니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하며 궁구해 보니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년째 ‘만민하게수련회’ 때 해외분과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방문한

손님들을 보며 ‘만리타향에서 오신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섬겨 드릴 수 있을까’ 하며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한 일이었지요.

사명을 귀히 여긴 것을 기뻐하셔서 이처럼 크게 축복하시고, 가정에도 축복해 주셔서 남편이 승진하고 세 딸이 주 안에서 예쁘게 성장하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시력 검사 결과

안과 측정		교정시력	
시력	우 0.7	우	
	좌 1.2	좌	
안저	정상	안압	우

시력 검사		교정시력	
시력	우 1.2	우	
	좌 1.5	좌	
안저	정상	안압	우

◀ 기도받기 전: 우 0.7, 좌 1.2

▶ 기도받은 후: 우 1.2, 좌 1.5

안과 측정		교정시력	
시력	우 1.2	우	
	좌 1.5	좌	
안저	정상	안압	우

시력 검사		교정시력	
시력	우 1.2	우	
	좌 1.5	좌	
안저	정상	안압	우



“뇌종양을 하나님께 치료받은 뒤 몸이 더욱 건강해졌어요!”

마르셀라 그라나다 성도 (32세, 콜롬비아만민교회)

2013년 2월, 심한 두통을 앓던 제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왼쪽에서 두 번째). 가족도 못 알아보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가 몸의 마비로 음식을 먹지 못한 것입니다. MRI 촬영 결과, 기억장치와 몸의 움직임

을 주관하는 왼쪽 뇌에 생긴 종양 때문이었습니다. 콜롬비아만민교회에 출석하시는 친정어머니는 제 상황을 아시고, 가족과 상의하여 병원이나 다른 물리적인 치료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이후 담임목사님의 조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한 주일성수를 하였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힘썼습니다. 예배 때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정성껏 받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담임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서 점차 기억력이 회복되고 몸의 마비도 호전되었지요.

2014년 2월, 담임목사님에게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를 받는데 그때는 온몸이 뜨겁고 땀이 흐르더니 몸과 마음이 매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어 병원 검진을 받았더니 의사가 종양이 사라졌다고 했지요. 할렐루야!

그 뒤 제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두통이 사라짐은 물론 기억력도 좋아져 대학에 복학하여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교회 봉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남편과 딸, 온 가족이 전도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러던 2018년 4월,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생리불순과 혈액순환 장애로 피부가 좋지 않고 컨디션도 난조를 보였는데,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은 후 온전히 치료받아 모든 증세가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선교회 회장과 안내위원으로, 남편은 봉사대로, 여동생들은 예능팀과 교회 직원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온 가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MRI 촬영 결과



◀ 기도받기 전: 좌측 시상과 기저핵에 종괴가 보이고 있음.



▶ 기도받은 후: 좌측 시상과 기저핵에 보였던 종괴가 보이지 않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릉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3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909-286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강원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3478-9668
- 충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248-6521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248-6521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련/D ☎031)905-2419, 010-2276-1014